

| 지역 사회적 대화 현장 |

부산형 일자리 통해 다시 달리는 부산 꿈꾼다

R&D 기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해외투자 국내투자로 돌린 선 사례

강은영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서울을 뒤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떠올리면, 십중팔구 부산을 떠올리게 된다.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는 한반도의 관문으로 급부상한 부산은 '제2 도시'라는 명칭도 얻게 됐다. 그 명맥은 지금도 이어져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부산광역시도 일자리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시름하고 있다.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산의 노사정이 마음을 모았다. 지난 2월 6일, 부산시는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부산시의 공이 컸다.

'제2도시' 명성 이어갈 수 있을까

부산은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인만큼 인구수부터 압도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약 340만 명이다. 수도 서울에 이어 2위를 자랑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는 없다. 최근 5년 간 인구가 1.5% 감소해 17개 시도 중 15번째 증가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2019년 부산의 고용률은 56.6%로 전국 평균 고용률인 61.5%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4월 기준 월평균임금은 332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업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본사는 수도권에 자리를 두고 있고, 부산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으로 형성된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메카도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미래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연기관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새로운 부가가치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다.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청사진은 청년들을 지역에 묶어둘 수 있다. 하지만, 부산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담보하기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1위 지역인 부울경은 하락세를 견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자동차부품업체는 미래자동차 흐름을 따라

가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해 그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부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사양길을 걷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에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산시청은 지대한 노력을 했다. 중국에 아시아 완성차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업체 BMW는 코렌스 EM이 중국에 입지할 경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중국 내 글로벌 협력사들을 소개하며 중국 내 투자를 유도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부지 무상임대와 설비투자 현금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웠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직접 조용국 코렌스 회장을 만나 국내 투자를 설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국가의 지원까지 더한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 결과, 코렌스는 해외 투자 대신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 경제부흥의 새 이정표를 꿈꾸다

부산형 일자리는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또한, 2020년 첫 번째 지역상생형 일자리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정당 대표와 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이 참석해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빛냈다.

자동차부품업체 (주)코렌스EM을 중심으로 20여 개 협력업체들이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자리를 잡고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제조공장과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건설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은 글로벌 자동차업체 BMW에 공급하는데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400만 대를 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31년까지 총 7,600억 원을 투자하고, 4,300명 직접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투자는 25년 전 르노삼성자동차 투자 이후 부산광역시의 최대 규모 투자·고용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클러스터 내 연간 3조 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창출돼 세수, 수출, 항만 물동량 증가 등 부산경제 도약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워트레인은 전기자동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등 총 900여 개 하위 부품으로 구성된다.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을 양산화하고 국산화로 기술개발 과정을 통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산업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체기를 겪고 있던 자동차부품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협약식에서 “탄탄한 실력과 기술을 갖춘 중견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부산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코렌스와 20여 개 협력업체들이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기술이전, 특허 무상사용, 인력파견을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수준 높은 ‘기술상생’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R&D기술 기반으로 동반 성장 꿈꾼다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R&D기술 중심의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상생 요소를 개발해내는 것이었다. 원하청 간 상생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상생 요소로 납득시키는 데 많은 고생을 했다. 실제로 원청과 벤더 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극명하고 기술 교류도 쉽지 않다. 부산시는 협력 업체와 원청 업체 간의 WIN-WIN 관계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핵심으로 내세웠다.

또한, 부산형 일자리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설계기술을 양산화해 국산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은 기술을 함께 키우고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R&D센터 속에서 한국 기술이 계속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코렌스는 내연기관 제조부문과 전기자동차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코렌스EM(Electronic Mobility) 법인을 신설했다. 코렌스EM과 협력업체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개발에 함께 한다는 점에서 기술조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노사도 부산형 일자리 완성에 힘을 보탰다. 노측에서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사측에서는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주로 대화를 나눴다. 노사 대표자들은 6개월 동안 12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동의 지향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원하청 간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신기술 합동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원하청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점도 있다. 노측은 ▲노동이사 참여 ▲근로시간제 준수 ▲전년대비 초과이익 발생 시 생산성 향상 포상금 지급 등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기업 수가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부산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측은 ▲전환배치 ▲신기술 교육훈련 의무 이수 등 새로운 전기자동차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시스템을 마련했다.



여기에 부산시는 노동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은 9만 평에 달하는 항만 인접 부지를 코렌스에 양보해 부산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했다.

노사민정 상생 정신 지속가능하게 할 것

지난 2월 6일 진행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의 슬로건은 “부산, 달라자!”였다. 전통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부품산업의 침체와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시의 미래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슬로건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당시 협약식에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은 “대기업이 없는 부산으로서는 노동자와 미래 자녀세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시가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청년들의 기대도 올라가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 해 온 김현재 부산시청 투자통상과장은 “부산 내 자동차고등학교 교사들은 제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데에 굉장히 기뻐한다”며 “대학생들도 부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부산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청년들의 불안한 심리를 잡게 된 것이다. 침체됐던 부산 경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부산형 일자리가 이제 첫 삽을 뜬 만큼 아직 가야 할 길은 많다. 현재 코렌스EM과 협력업체들은 R&D 기술을 연구하는 단계로, 기술을 양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을 발판으로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노사민정이 한 뜻으로 모인 만큼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김현재 과장은 “시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노사민정이 합의한 정신에 맞춰 노사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나가느냐”라며 “부산 경제를 살리자는 정신에서 시작한 만큼 협력과 양보의 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제2 도시 부산이 위기를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하나로 모인 만큼 그 첫 마음이 끝까지 유지돼 전기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